

태양열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태양열은 가장 경사스러운 민족최대의 명절이다.

아버이수령님을 모시여 자주와 존엄으로 빛나는 공화국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담보하는 인민의 세상이 펼쳐질수 있었다. 수령님은 곧 민족의 운명이었고 하늘이시였다.

세기가 바뀌어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날이 가고 해가 바뀔때 따라 더욱 그리워지고 안기고싶은것이 김일성주석의 자애로운 품이다. 조국과 민족앞에, 인류앞에 그이 쌓으신 업적은 저 하늘에 닿을 크나큰 업적이고 영구불멸할 업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생추원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른다.

그이의 업적중의 업적은 자주시대를 열었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자주와 빛발로 민족과 인류의 운명개척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신것이다.

자 주, 이 말 속에 는 아버지수령님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이 함축되어있다.

인류력사의 갈피에는 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있지만 아버지수령님처럼 주체의 광휘로 온 빛발로 자주와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공화국을 이끄시는 전기간 탁월한 자주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시고 높이 펼쳐주신 위인은 일찌기 없었다.

자주는 아버지수령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원해오신 정치신조였고 투쟁방식이였으며 실천이였다.일찌기 10대의 시절에 자주적운명개척의 지도리념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언제나 자주의 기치 높이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수호

## 자 주 로 빛 나 는 위 대 한

하고 부강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애국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지난 세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벌리신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은 외세에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이였다.

수령님께서 는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생명,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그것을 실현하자면 사대와 교조를 배격하고 혁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밝히시였다.

고전의 대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민을 떠나 기성리론의 명제에나 매달리고있을 때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서 주체의 진리를 새롭게 밝혀내시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승리로 이끄신 아버지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청소한 공화국을 요망기에 암살하려고 미국과 제국주의련합세력이 덤벼들었을 때 다른 나라의 싸움방식이 아니라 조선식의 새로운 전법을 제시하시고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위대한 전승의 신화를 창조하시였다.

주체를 필생의 좌표로 삼으시고 철의 신념과 드물지 않는 배짱으로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 계시여 공화국은 미제의 계속되는 군사적도발을 물리치고 조국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지켜낼수 있었다.



집무실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지난 세기 1960년대 말 미국은 공화국의 령해깊이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자 그것을 구실로 살아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고 책

동하였다. 당시 미국은 저들의 범죄행위를 시인하고 공화국에 사죄할 대신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식으로 《군사적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공갈하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미국의 광

란적인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

## 한 생

쟁으로 대답할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단호한 립장과 그에 호응하여 펼쳐나선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기세앞에 미국은 드디어 무릎을 꿇고 사죄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암살하려고 미처날뛰었지만 그때마다 쓰디쓴 참패를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은 바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현명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주신 아버지수령님의 자주, 자위의 로선이 있었기때문이다.

주체조선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력사도 아버지수령님의 자주적립장을 잘 말해주고있다.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 옷이 아니라 오직 조선옷이 맞다고 하시며 새 조국건설도 조선식의 정당한 로선과 방식대로 풀어나가신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도 완성하고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설수 있었다.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시며 이 땅우에 주체의 강국을 세우신 수령님의 업적을 청송하여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전 지국장은 《김일성주석의 정치리념을

굳이 한마디로 들라면 나는 그분이 민족자주를 앞세운 민족주의자였다고 말할수 있다. 외세의 지배로부터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추구한것은 참으로 존경할만한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감동을 표시하였으며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김일성주석은 진보적인류가 청송하는 세계적인 수령이다. 온 세계가 평가하는 국제적수령이 우리 민족의 령수라는 사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공화국이 오늘과 같이 정치군사강국으로,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굳건해질수 있는것은 강한 자주적대로 모든 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아버지수령님의 강인담대한 신념과 의지와 때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사대와 교조, 지배주의가 만연되던 지난 세기에 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신 아버지수령님의 결단도 참으로 위대하지만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살판치는 것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 시종일관 자주적대를 굽히지 않으시고 우리 혁명위업을 배심있게 떠맡아오신 수령님의 혁명실천은 현대정치사에 특기할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추켜드신 자주의 기치는 공화국의 영원한 생명선이며 승리의 표대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다는 드립없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공화국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본사기자 주일봉

주체82(1993)년 4월 9일.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절대적인 지지에 따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위임장으로 높이 추대한 그때로부터 어느덧 21돌기의 년월이 새겨졌다.

지나온 스물한해는 령장이 있어야 장군이 있고 나라의 안녕과 민족의 존엄이 지켜질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준 못잇을 추억의 날과 달이다.

1994년에 뜻밖에도 민족최대의 국장을 당하고 온 나라에 퍼논 물의 곡성이 터질 때 제국주의자들은 패배를 부르며 반공화국암살의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며 사면팔방으로 달려들었다. 열친대립치는 격으로 레닌에 없는 자연재해가 련속 들이닥쳐 농업부분이 큰 피해를 당하고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력강화의 길을 택하시였다. 아이들이 설맞이공연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학생소년군절으로가 아니

## 선 군 의 오 직 한 길로

라 인민군군인들이 지켜선 다박술소소를 찾으신 그날로부터 최전연 고지들과 최전방 초소들에로의 선군장정의 길은 쉬임없이 이어졌다.

사시장철 곳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이어진 초창도강행군길에서 그이의 아연차는 언제나번 멈춘적 없었고 속도를 늦춘적도 없었다.

당시 장군님의 심중에 무엇이 고동치고있었는지 누구도 몰랐다. 그것은 선군으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실 크나큰 웅지였다.

그 누가 내마를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조용히 부르 고 또 부르시며 장군님 녀고님으신 철령이며 오르신 오성산의 아찔아찔한 칼바랑길은 선군의 만단사연을 지금도 눈물겹게 전해 주고있다.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

## 한 길로

해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시고 해쳐가신 떨고 험한 그 길우에서 공화국은 자위의 핵억제력을 보유한 최강의 군사강국으로, 인공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 솟구쳐올랐다. 사회주의와 인민의 운명이 구원되고 이 땅의 평화와 겨레의 안전이 지켜졌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하기에 오늘날 인민들은 절세위인을 사무치게 그리며 장군님 해쳐가신 고난의 그 시절을 우리는 잊지 않으리라고 눈물겹게 노래하고있는것이다.

그이의 헌신의 로고속에서 오랜 세월 불신과 대결의 차디찬 랭기만이 떠돌던 이 땅우에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로운 력사적 시대도 펼쳐지게 되었다.

남녘의 각계층 동료들과 언론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민족의 령수로 높이 모시고 만들어 나가는데 조국통일도 민족의 창창한 미래도 기약되어있다.》고 흠모와 격찬의 목소리들을 터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에국의 길을 오늘날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걸으시며 민족자주위업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계신다.

최근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독수리》합동군사연습소동은 사상 최대규모로 벌어지고있으며 이로 하

여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핵전쟁위험이 조성되고 있다.

호전광들은 공화국북반부 해안지대로의 상륙을 위한 교두보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상륙작전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륙돌격장갑차, 공기방석정 등에 의한 상륙훈련을 맹렬히 벌리면서 실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소동을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전지령의 지략과 담대한 배짱, 걸출한 령도력으로 적들의 무모한 침략전쟁책동을 걸음마다 단호히 짓부시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승리로 이끌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지난 3월 한달동안에만도 세차례나 인민군군인들의 사격경기를 지도해주시였으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과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강령적인 지침들을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며칠전에는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도 만나시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탁월한 령도로 공화국의 군력을 더욱 강화하시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사는 천하제일강국의 그날을 앞당겨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여말로 명장중의 명장이고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또 한분의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발악적책동속에서도 공화국은 조금도 끄떡하지 않으며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는 확고히 담보되고있는것이다.

김충직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명도실록을 가슴깊이 새겨가는 근로자들

머칠전 서해상에서 남조선군부艦대들에게 랑치되었다가 돌아온 공화국의 선원들이 국내의기자화견을 가졌었다.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경 조계잡이를 위해 룡연군 구미리에서 배를 타고 출항한 웅진수산사원선장 림춘수, 기관장 김철, 선원 김태원은 항해중 기관고장으로 항로를 잃게 되었다. 바로 이때 남조선해군 2함대소속 폐속정면대가 그들의 여선을 나포하고 선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과 《귀순》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군부艦대들의 온갖 고갈과 회유를 물리치고 끝내 28일 새벽 2시경 조국의 품에 안길수 있었다.

하다면 이들이 어떻게 되어그리운 조국으로 무사히 돌아올수 있었는가.

기자화견장에서 선장 림춘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는 조국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하였는지 전혀 모르고있었습니다.

돌아와서야 조국의 강력한 조치에 의해 피뢰艦대무리들이 우

리를 어찌지 못하고 서둘러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는것을 알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랑치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다시 돌아올수 있는것은 저절로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였다. 기자화견에서 선원들이 격분을 터친것처럼 남조선해군艦대들은 그들을 쇄동으로

서 공화국의 선원들을 황급히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가내의신기자들앞에서 궁지높이 말한것처럼 공화국의 인민들에게는 천만자식들의 운명과 미래도 모두 지켜주고 책임져주는 은혜로운 공화국의 품, 선군으로 강대한 조국의 품이 있다.

그 품은 망망대해로 떠내려갔던 자식도 온 바다를 다 뒤져서라도 기어이 찾아오고 풍랑을 만나 배가 가라앉는 위기일발의 순간에도 비행기를 띄워 끝끝내 구원해주는 어머니의 품이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공화국에 수없이 많다. 얼음장에 실려 바다에 떠내려갔다 구원된 어로공녀, 군사입무수행도중 사나운 풍랑으로 적구에 억류되었다 돌아온 두 병사, 판문점포리선을 넘어 조국의 품에 안긴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의 이야기...

남조선에서 34년간이나 옥중고초를 겪고 감옥문을 나와서도 통

일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비전향장기수 리인모로인도 전사들에 대한 절세위인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의리심에 의하여 조금도 굽떡하지 않으며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는 확고히 담보되고있는것이다.

오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꿈에도 안겨사는 어머니조국의 품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이다. 천만자식 한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일일이 돌봐주고 그들의 삶과 행복을 끝까지 지켜주고 빛내주는 이런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어 평범한 어로공들이 사지판에 놓였다가도 구원되어 돌아올수 있었고 그 어떤 원쑤도 감히 그들의 운명에 칼질을 할수 없었던것이다.

하기에 림춘수, 김철, 김태원은 기자회견장에서 자기들의 심정을 담아서 이렇게 웅했다.

《홀로 망망대해에 떨어지고 원수들의 소굴에 갇힌다 해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무서울것이 없으며 반드시 이긴다는 철의 진리를 체험을 통하여 심장깊이 새겨안았습니다.》

본사기자 김강철



주체44(1955)년 여름 어느날, 공부가 끝나고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뜻밖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만나뵈고 소년단정례를 깎듯이 드리는 창성군 아이들속에는 신발을 못 신은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수령님께서 먼지물은 자기의 발을 내려다보시며 안색을 호리시자 부끄러워 뒤로 물러서려고 하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물으시였다.

《나의 집에는 누가 계시느냐?》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계시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있습니다.》

《이아버지는?》 《…》 《이아버지가안 계시느냐?》 《아버지는 전쟁때 전사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더 말씀

## 수령님과 발벗은 소년

이 없이 그 소년을 꼭 껴안아주시였다. 그러시다가 수원들에게 《이거 보오, 이애에게 신발 하나 신기자 뚫했는데 그래요 이애는 나를 보고 인사를 하요.》라고 하시며 안색을 더욱 호리시였다.

잠시후 수령님께서서는 소년의 집이 어디며 살림형편은 어떤가를 세세히 알아보시고나서 아이들과 헤어지시면서 좀 있다가 너희들의 집에 들려보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소년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리려고 집으로 달음박질을 쳤다. 집까지 절반길을 왔을 때 문득 뒤에서 경적소리가 울리더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차가 곁에 와서 멎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차문을 여서고 어서 차에 올라타라고 손을 내미시였다. 소년은 목이 메여 《신발을 사주셔서, 공부 잘… 공부 잘하겠습니다.》라고 겨우 말씀을 올리고는 수령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말았다.

본사기자

## 휴식일은 없습니다

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동물원의 특색이 살아나게 건설해야 한다고 하신 정문을 비롯한 곳곳에 뜨겁게 어리여었다.

팽진새사를 비롯한 새로 일떠세우는 건축물들을 동물원의 생래학적특성에 맞게 시공하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귀중한 유산으로 남겨주신 나라의 재부이며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거점인 동물원을 훌륭히 개건하라는 기대와 확신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는 모든 대상들을 인민들에게 웃음과 희열을 안겨주는 즐거움 휴식장소로 꾸려야 한다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였다고 한다.

생각도 깊어진다. 사회주의수호전을 진두에서 이끄시느라, 인민에게 더 좋은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시느라 언제 한번 휴식을 모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련해주시려 원수님께서는 명절

날도 일요일도 다 바치시며 애국헌신의 나날을 이어가고계시는것이다.

동물원에는 언제나 인민을 기다려 휴식일이 없고 인민의 휴식일을 보다 즐겁고 광망적인것으로 가꿔주시려 마음쓰시는 원수님의 날과 날에도 휴식일은 없는것이다.

그이의 헌신의 날과 달속에 인민의 행복의 시간이 흐르고 인민을 위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이련이어 솟구치고있다.

휴식일은 없습니다! 커가는 인민들의 기쁨속에 더욱 유정하게 안겨오는 글밭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